

2025.02.17.(금) 증권사리포트

이수페타시스

고부가 스위치 물량 증가로 수익성 호전 전망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내용 면에서는 좋았던 4Q24 실적

4Q24 매출액은 2,261억원(10%QoQ, 30%YoY), 영업이익은 276억원(7%QoQ, 161%YoY)를 기록, 매출은 컨센서스를 2%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추가적인 성과급 반영(25억원)과 다중적층 구조 적용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 때문에 기대치를 9% 하회했다. 작년 본사 데이터센터 향 매출비중은 74%(23%pt YoY)에 이른다. 4Q24 페타시스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1,945억원, 208억원을 기록했고, 중국법인은 매출 446억원(32%QoQ, 32%YoY), 영업이익 41억원(21%QoQ, 24%YoY), 미국법인은 27억원의 영업흑자를 유지했다. 중국법인은 중다층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미국법인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흑자 구조로 바뀌었다.

수익성 높은 스위치 수주 급증,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 견인

동사 월 수주금액은 지난 3Q24까지 5백억원 대에서 4Q24에는 756억원, 올해 1월은 79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최대 고객사로부터 스위치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익성면에서 제품 믹스가 호전되고 있다. 북미 GPU 고객사 향으로 신제품도 곧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매출도 4~50%YoY 성장할 전망이다. 동사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액을 8백억원에서 1천 5백억원으로 상향하며 Capa 증가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페타시스 본사 매출은 8,524억원(19%YoY)으로 이전 예상(14%YoY) 보다 성장이 커질 것이며, 800G 스위치 물량 증가로 수익성도 호전될 전망이다.

목표주가 53,000원으로 상향조정, 투자 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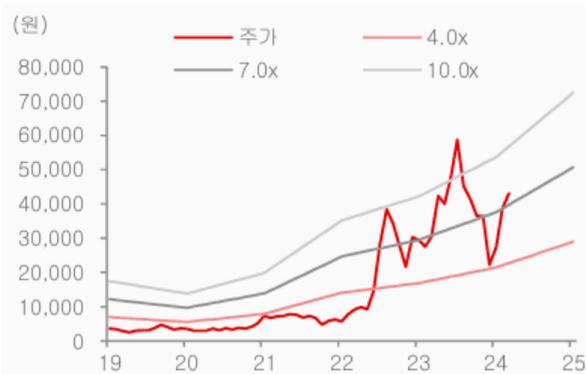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9% 상향수정함과 유증을 통한 M&A 계획이 철회된 것에 따른 Valuation 할인 요소가 해소되어, 동사 목표주가를 53,000원 (평균 P/EBIT 22x 적용)으로 상향조정한다.

Fig. 1: 이수페타시스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643	675	837	985	1,122
영업이익	117	62	104	152	182
세전이익	108	55	94	143	175
순이익[지배]	102	48	76	122	149
EPS(원)	1,620	755	1,202	1,927	2,350
증감률(%)	흑자전환	-53.4	59.2	60.3	22.0
PER(배)	3.5	39.0	22.8	22.3	18.3
PBR	1.6	7.0	5.1	5.9	4.5
EV/EBITDA	3.9	26.4	14.9	15.8	12.7
ROE(%)	58.9	19.5	25.1	30.6	28.0
배당수익률	1.8	0.3	0.4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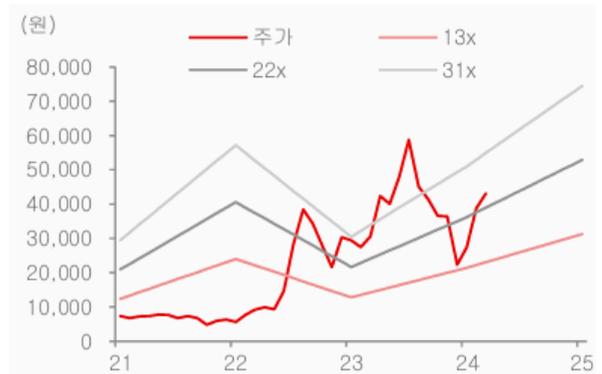
자료: 이수페타시스,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이수페타시스 P/B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이수페타시스 P/EBIT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카카오

카카오톡 2.0, SNS _ AI Agent를 추구

[출처] 하나증권 이준호 애널리스트

4Q24 Re: 무난한 실적, 메시지 여전히 견조

카카오는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1조 9,592억원(-2.0%YoY, +2.0%QoQ), 영업이익 1,067억원(-33.7%YoY, -18.2%QoQ, OPM 5.4%)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추정치에는 부합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1조 491억원(+9.6%YoY, +11.2%QoQ)이다. 특비즈 매출액은 5,627억원(+9.6%YoY, +11.2%QoQ)를 기록했다. 광고 부문에서 비즈니스 메시지(+18%YoY)는 대체 불가능한 채널로 자리잡으며 고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즈보드 광고(-2%YoY)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지면 개편의 필요성 재확인했다. 11월 신규 전면 광고 상품 '포커스 풀 뷰'를 오픈채팅 탭에서 제공했으나 온기 반영되지 않았다. 4분기 영업비용은 1조 8,524억원(+0.8%YoY, +3.4%QoQ)로 안정적 수준 유지하고 있다. 비용 특이사항으로는 상각비가 2,461억원(+355억원QoQ)을 기록한 점인데, 이는 3분기 영업 외로 인식한 티맵 관련 비용을 재산입한 영향이다.

카카오톡 2.0, 체류시간 +20%가 목표

카카오는 2025년 영업수익 8조 1,525억원(+3.5%YoY), 영업이익 5,339억원(+8.6%YoY, OPM 6.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콘텐츠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업과 AI의 성과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연내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 +20% 향상을 위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카카오톡 내 발견 지면을 추가할 예정으로 트래픽 및 광고 지면 확보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피드와 유사하게 이미지, 동영상, 숏폼 콘텐츠가 공존하는 형식 예상된다. 또한 현재 샵검색을 AI 생성형 검색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퍼블렉시티와 같이 AI 검색 엔진으로 발전을 예상하며 추후 구독 BM도입 및 검색 광고 매출 기대 가능한 방향이라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카카오톡 내에서 function call로 카카오톡의 모빌리티, 지도 등 모든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예상한다. 다만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기에 모든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과정의 난도는 높다. 기존 사용자의 서비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향후 구체적인 업데이트 계획 공개 및 활성화에 따라 추정치 반영 예정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유지한다. 카카오톡에 SNS와 AI Agent를 입혀 발전시키는 현재 방향성 긍정적이다. 이외에 신규 AI 메신저 앱 '카나나'는 1월 사내 CBT를 마쳤으며 상반기 내로 일반 사용자 CBT 예정이다. 아직까지 국내 AI 앱 시장에서 ChatGPT라는 상징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메인 앱은 없다. 오픈AI의 모델을 포함하여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제공하는 카카오가 높은 점유율 가져올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 직접 적용하기에 AI 서비스의 상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6,798.7	7,557.0	7,873.8	8,152.5
영업이익	569.4	460.9	491.5	533.9
세전이익	1,268.9	(1,648.2)	132.7	373.8
순이익	1,358.0	(1,012.6)	149.0	267.6
EPS	3,049	(2,276)	336	603
증감율	(2.31)	적전	흑전	79.46
PER	17.42	(23.86)	113.69	66.67
PBR	2.37	2.47	1.69	1.73
EV/EBITDA	21.55	20.95	13.35	13.48
ROE	13.62	(10.26)	1.50	2.63
BPS	22,416	21,951	22,642	23,185
DPS	60	61	61	61





한전기술

체코 원전 본 계약 체결 기대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수익성 확대 흐름 지속될 전망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94,000원을 유지한다. 작년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원전 설계·O&M 매출 성장에 기인한 영업 마진을 확대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연구과제 관련 기타 수익이 발생하는 가운데, 용인 구사옥 매각 계약에 따른 선수금 부채 약 700억원이 1분기 기타 수익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Q24 EPC 사업 축소, 외형 줄었지만 마진을 개선으로 귀결

4Q24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26억원(-2.3% yoy), 268억원(+1,530.4% yoy)으로, 컨센서스(2,032억원 / 137억원)와 IBKS추정치(2,043억원 / 129억원) 대비 매출은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크게 상회했다. 제주 한림 해상 풍력발전사업(23년 690억원→ 24년 180억원) 등 EPC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사 매출이 감소했지만, 수익성 높은 원전 설계·O&M 매출 비중이 확대돼 전사 마진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다.

체코 원전 본 계약 체결 여부, 올해 주가 및 실적에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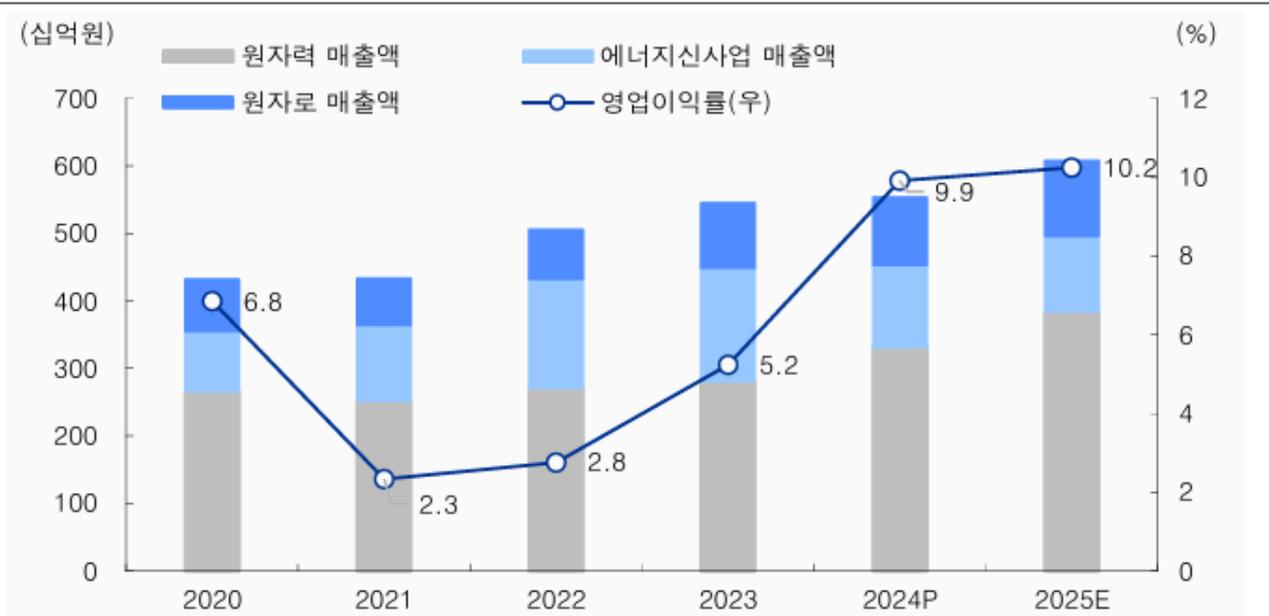
올해 연결 매출액은 6,078억원(+9.8% yoy), 영업이익은 623억원(+13.6% yoy)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EPC 및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수주 부재로 에너지신사업 부문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자력과 원자로 부문은 신한울 3,4호기와 체코 원전 설계 및 O&M 실적이 반영되며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체코 원전 계약 금액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조원(총 사업비: 24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한울 3,4호기(총 사업비: 11조원, 계약 금액: 6,100억원) 보다 규모가 커 장기간 안

정적인 실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형 SMR 기술개발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 규모도 작년 대비 올해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505	545	553	608	688
영업이익	14	29	55	62	71
세전이익	26	44	76	176	99
지배주주순이익	18	33	59	137	76
EPS(원)	470	854	1,531	3,594	1,991
증가율(%)	9.1	81.9	79.2	134.7	-44.6
영업이익률(%)	2.8	5.3	9.9	10.2	10.3
순이익률(%)	3.6	6.1	10.7	22.5	11.0
ROE(%)	3.4	6.0	10.4	21.7	10.7
PER	116.2	72.7	34.6	19.4	35.1
PBR	3.8	4.3	3.5	3.9	3.6
EV/EBITDA	55.1	46.1	25.5	31.1	28.4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한전기술, IBK투자증권



LX하우시스

B2B 건축자재의 감소

[출처]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

4Q24 잠정실적: 컨센서스 하회

LX하우시스 4Q24 실적으로 매출액 8,906억원(+0.9%yoy), 영업이익 49억원(-44.7%yoy)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건축자재는 3분기에 이어 미국 e스톤의 판매 부진 및 B2B 건축자재와 국내 단열재 물량 감소 등 고마진 제품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믹스 악화 영향이 있었다. 여기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MMA)도 마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B2B 건축자재는 착공 감소와 그에 따른 기성금액 감소로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었으나, B2C가 이를 메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자동차/산업소재 부문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잘 나왔다. 산업용필름 수출 물량 증가(기존 거래처의 물량 증가 및 판매처 확대)로 자동차/산업소재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다. 영업외 특이사항으로 건자재 부문을 업황 부진에 대한 반영으로 손상 차손 약 170억원이 반영됐다.

2025년은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

2025년 매출액 3.6조원(-0.4%yoy), 영업이익 867억원(-11.1%yoy)으로 전망한다. 건축자재 OPM 1.8%, 자동차/산업소재 OPM 4.0%로 추정했다. 건축자재 매출액의 경우 기성물량 감소에 따라 B2B 물량 감소 영향 지속, B2C부문의 회복 지연 및 불확실한 미국 건자재 경기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소재 부문도 올해와 비슷한 물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재무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말 기준 차입금은 7,242억원(단기 3,570억원, 장기 3,672억원)으로, 전년대비 713억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3년말 186.3%에서 170.6%로 하락했다. 이러한 차입금을 줄이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0,000원으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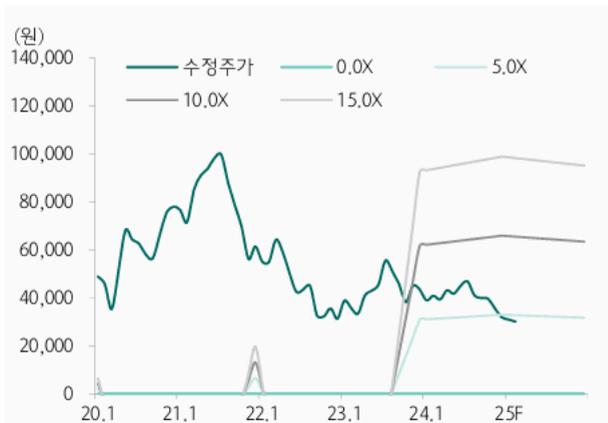
LX하우시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55,000원에서 40,000원으로 27.3%를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025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0.0배를 적용했다. 예상치를 하회했던 4분기 실적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진할 것을 반영하여 추정치를 하향했다. 2025년 B2B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매거래량 회복 여부에 따라 실적 상향의 여지가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611.2	3,525.8	3,572.1	3,556.5
영업이익	14.9	109.8	97.5	86.7
세전이익	(105.9)	70.6	48.9	50.7
순이익	(117.1)	61.8	44.3	40.0
EPS	(11,710)	6,179	4,434	4,003
증감율	적전	흑전	(28.24)	(9.72)
PER	(2.67)	7.06	7.19	7.66
PBR	0.40	0.52	0.37	0.34
EV/EBITDA	6.35	3.66	3.54	3.47
ROE	(14.25)	7.66	5.23	4.57
BPS	78,194	83,498	86,519	89,120
DPS	200	1,700	1,700	1,700

도표 2. PE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PB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녹십자월빙

잔잔했던 사업에 붙은 '특신'과 '수출'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성과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인수

녹십자웰빙 국내 특신 기업인 이니바이오를 인수했다. 소유 지분율은 21.4%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지분 취득을 위해 전환사채 200억 원도 발행한다. (총 취득금액 400억 원) 취득예정일자는 4/4이며 지분법 손익으로 이니바이오의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니바이오는 2020년 특신 '이니보주'에 대해 수출 품목허가를 취득, 2023년에는 국내에서 10번째로 식약처 허가를 득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CIS국가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태국 및 브라질, 대만 등에서의 인허가가 예상되며 2026년 매출 고성장을 통한 BEP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인수는 이니바이오의 글로벌 사업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결정한 투자로 보여진다.

연 900만 바이알/최소 2,000억 원 이상의 CAPA 확보

이니바이오 생산시설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해 있으며 단일 공장으로 연간 900만 바이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 시 약 2,000억 원이며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태국, 브라질, 대만 등에서의 인허가 완료 및 판매 시작이 예상되며 중국은 2026년 인허가 신청(임상 3상 완료) 및 판매허가 확보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측이 제시한 매출 가이던스는 2025년 260억 원 → 2026년 420억 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에 기반한 수치로 판단한다. 국내 시장은 녹십자웰빙의 영업망을 활용해 향후 진출 예정이며 이미 품목허가도 받아놓은 만큼 수월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녹십자웰빙의 본업도 순항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건기식 부문도 순항 중이다. 국내 라이넥은 정맥주사 투여 용법 추가, 제형 변경 및 거래처 확대를 진행 중이며 중국도 계속 판매 중이다. 건기식 B2C부문도 올해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안정적인 본업에 '특신'과 '수출'로 성장 포인트가 더해지면서 투자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91	110	121	134	178
영업이익	8	8	10	13	25
영업이익률(%)	8.5	7.7	8.7	9.7	14.2
세전이익	8	9	8	10	2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	8	7	7	16
EPS(원)	378	451	380	421	890
증감률(%)	338.3	19.4	-15.7	10.7	111.5
ROE(%)	7.8	8.7	6.9	7.2	14.0
PER(배)	26.9	18.3	21.4	21.3	10.1
PBR(배)	2.0	1.5	1.4	1.5	1.3
EV/EBITDA(배)	20.3	16.0	11.2	10.1	5.9

자료: 녹십자헬빙,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SOOP

해외 성장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이창영 애널리스트

4Q24 Review

매출액 1,176억원(YoY +17.2%), 영업이익 286억원(YoY +8.4%), 지배순이익 225억원 (YoY +41.3%). 시장 기대치 소폭 하회

[플랫폼] 커뮤니티 확장&안착 효과로 ARPPU 지속 증가, 824억원 YoY +20.3%.

[광고] 플랫폼 광고 성수기 효과, 오프라인 BTL 광고 수요 증가에 따른 콘텐츠 광고 급증으로 339억원 (YoY +13.4%). 지스타, 연말 시상식 등 행사비 증가, 광고 매출 증가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로 영업이익률 Y-Y 2.0%pt 감소한 24.3% 기록

2025년 전망: 해외 성장 기대

국내 사용자수의 외형 성장은 없지만, 플랫폼 충성도는 계속 상승(ARPPU 상승) 중이고, 국내 스트리머의 해외 동시 송출, 해외 스트리머의 증가에 기반한 국내 기부경제 모델, 광고 모델의 해외 확산으로 해외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대

동사는 e스포츠 대회 등 오프라인 행사 주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BTL(Below The Line, 대면 커뮤니케이션) 광고가 2025년에도 타 플랫폼사는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광고매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5,000원으로 상향조정

동사는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부경제모델이라는 독창적 수익모델 보유. 이러한 콘텐츠와 수익모델은 발로란트, LoL 등 글로벌 인기있는 e스포츠 중계 스트리밍 모델을 매개로 AI 기술(통번역, 콘텐츠 생성 등)과 함께 해외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2025년 증가된

실적과 해외 성장가능성에 대한 멀티플 상향으로 목표주가를 16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4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176	17.2	6.9	1,191	-1.3
영업이익	286	8.5	19.9	292	-2.0
세전계속사업이익	315	40.7	7.7	326	-3.1
지배순이익	225	41.5	-5.8	233	-3.5
영업이익률 (%)	24.3	-2.0 %pt	+2.6 %pt	24.5	-0.2 %pt
지배순이익률 (%)	19.1	+3.2 %pt	-2.6 %pt	19.6	-0.5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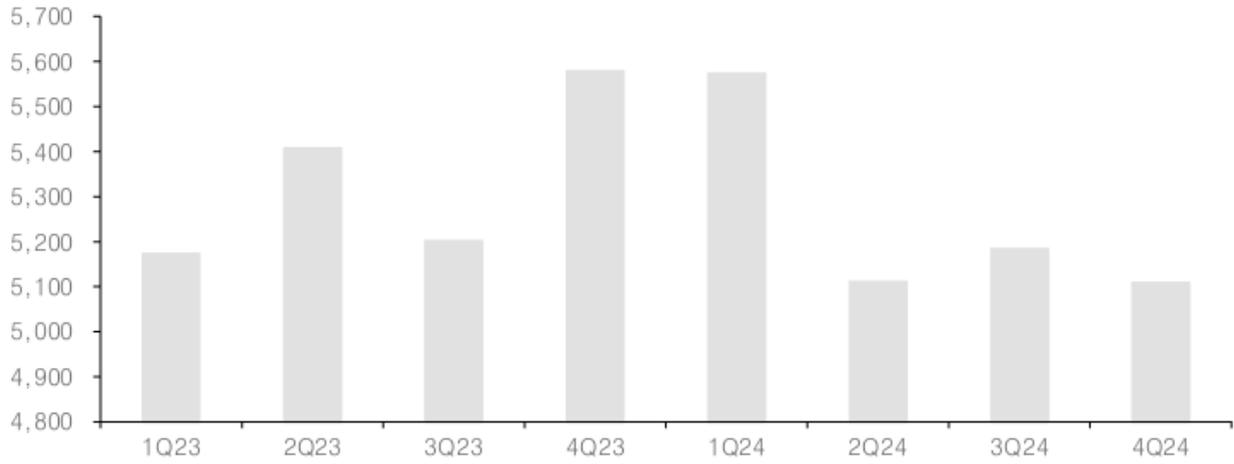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3,150	3,476	4,291	4,760
영업이익	824	903	1,143	1,320
지배순이익	597	746	985	1,059
PER	20.3	12.0	10.6	13.4
PBR	4.8	2.9	2.6	2.8
EV/EBITDA	9.5	5.0	4.3	5.7
ROE	26.5	28.0	29.9	25.4

자료: 유안타증권

Monthly Unique Visitor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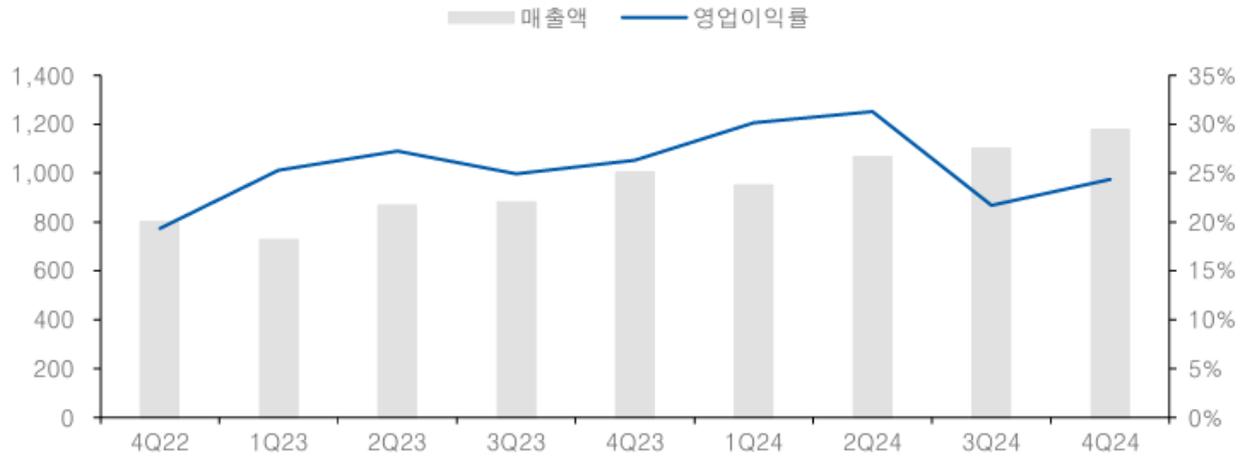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SOO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매출액 &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억원)



자료: SOO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롯데웰푸드

비우호적 사업환경 이어져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인도 사업 확대 긍정적이거나, 비용 상승 장기화 부담

인도 사업 모멘텀 강화됨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하브모어 푸네 신공장(capax: 1,500억원, 기존 대비 50% 증가) 가동을 개시했고, 1분기 중 롯데 인디아, 하브모어 합병이 완료될 전망이다. 인도 빼빼로 신규 라인과 초코파이 4라인도 하반기 가동 예상된다. 다만 내수 소비 둔화 및 코코아 등 원가 부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 목표주가는 14만원(기존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17일부터 가나, 빼빼로 등 국내 건빙과 제품 26종에 대해 평균 9.5% 가격 인상을 결정했지만 원가 상승 부담이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영업 마진을 하락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이 9,705억원(-0.9% yoy), 영업이익은 196억원 적자(적자전환 yoy, 4Q23: 292억원)로 컨센서스(9,908억원 / 208억원)와 IBKS 추정치(9,985억원 / 210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일회성 인건비(퇴직 총당금, 장기근속자 시상 등) 이슈와 더불어 투입 원가 상승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97억원(-4.6% yoy), 241억원 적자(적자전환 yoy, 4Q23: 164억원)를 기록했다. 내수 소비 위축으로 건과(-3.8%)를 비롯, 유지(-12.0%), 빙과(-9.2%) 등 대부분 품목 판매가 줄었다. 어려운 가운데 북미 빼빼로 등 수출은 518억원(+22.1% yoy)으로 증가세 이어진 점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매출은 2,321억원(+14.6% yoy), 영업이익은 94억원(-40.7% yoy)을 기록했다. 인도 법인 매출이 초코파이 판매 호조 및 빙과 거래처 확대 효과로 11.4%(yoy) 늘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매출도 각각 13.7%(yoy), 6.6%(yoy) 개선됐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경우 초코 베이스 건과 제품 비중이 약 50%이고, 인도(건과)는 초코파이 매출 비중이 약 80%로 높기 때문에 국내 대비 카카오 원가 부담이 더 컸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3,203	4,066	4,044	4,215	4,419
영업이익	112	177	157	194	217
세전이익	52	110	108	155	176
지배주주순이익	47	71	85	109	124
EPS(원)	5,931	7,476	8,964	11,526	13,164
증가율(%)	9.1	26.0	19.9	28.6	14.2
영업이익률(%)	3.5	4.4	3.9	4.6	4.9
순이익률(%)	1.4	1.7	2.0	2.5	2.7
ROE(%)	2.9	3.5	4.1	5.1	5.6
PER	20.7	16.6	12.4	9.3	8.2
PBR	0.6	0.6	0.5	0.5	0.4
EV/EBITDA	8.0	5.5	4.4	4.5	4.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